

불교계-정부-지자체 협력 종단·법인 등록 검증해야

수준미달 종단 난립 막을 길 없나

새롭게 생겨나는 종단과 종교법인 중 일부가 미등록 상태로 활동하거나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사명칭 사용과 법인제도 악용 사례도 증가해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지난 3월 창종한 경기도 여주 A종단의 경우가 그 좋은 예다. 이 종단은 인근지역에서 접 잘 보기로 소문난 주지가 창종했다.

A종단은 고작해야 사찰 주지인 총무원장과 2-3명의 스님으로 구성돼 있다. 그들은 무속행위를 배우는 제자들이다. 여주군청에 확인결과 종단 등

요청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적으로 요청이 오는 지자체는 고작해야 부산, 광주, 대구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거르는 장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종단협은 종단협에 소속되지 않은 120여개의 종단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몇몇 종단은 무속 등 불교와는 거리가 먼 행위를 통해 신도를 끌어들이는 등 기존 종단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같은 현상은 종단을 설립할 경우 문광부에 등록해야 했던 불교재산관

자는 "심의를 까다롭게 강화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종교법인의 등록 허가후에도 꾸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많은 행정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무분별한 종단단체의 난립을 더이상 방치하기에는 위험수위가 심각하다. 편법으로 종교법인을 구성한 후 지자체의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친인척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이에 더해 법인 재산 분규 등 말썽을 일으키는 종단도 있다. 2005년 충청북도에서 법인허가를 얻은 C종단은 2006년부터 법인 재산을 둘러싼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종무행정을 보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포교는커녕, 자주 분쟁을 목격하는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며 불교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도는 없는 것일까. 종단협 조종준 차장은 "불교계와 정부의 협력적 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은 "수준미달의 비불교적인 종단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들이 법인까지 만들어 활동하며 더 큰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불교적인 종단과 불교법인을 걸러내는 여과 작용을 할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단 등록과 법인 허가에 앞서 문광부와 해당 지자체가 종단협에 철저한 검증요청하고, 종단협이 지역 사찰, 스님, 불자들과 연계해 이를 검토한다던 사이비 종단의 등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단협은 지난달 종교법인 지원단체의 서류 등록 심사를 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지자체의 요청을 세밀히 검토해 종단등록 취소요청을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사칭 ... 자적도 안 갖추고 버젓이 무속행위

심사절차 간소한 틈타 편법 · 위법행위 일삼아

룩이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버젓이 종단이름을 내걸고 아직도 고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다수 인근 지역 주민들은 A종단의 출현으로 불교에서도 당연한 점을 봐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2001년 법인 등록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종교법인들이 등록조차 하지 않은채 활동해 불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종단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단, 불법적 활동을 하는 종교법인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장치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은 "종단협은 1년에 두 차례씩 지방자치단체에 종교단체 등록심사시 종단협으로 검증

리법이 1987년 폐지된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2001년부터는 문광부에서 심사하던 법인 등록 절차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법인 등록이 용이해진 점도 종단 난립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광부 종무담당관실 엄성근 주사는 "현재 3개시도 이상 지부를 설치한 법인에 대해서만 문광부에서 등록 받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등록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특히 민법 32조 법인설립 요건에 해당되지만 하면 특별한 규제없이 현행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보장 조항에 의거해 등록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엄 주사는 "일부 사이비 종단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현행법으로는 특별히 규제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문광부의 한 관계

광범사에서 '소백산 지킴이 발대식'을 봉행한다.

'소백산 지킴이'는 소백산 자연 및 환경보호 캠페인, 등산로 청소 및 관리, 무제한적 개발로부터 소백산 보호, 생태계 보호 세미나 및 학술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소백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043)420-7313

진각종 창작서원가 가사 공모

진각종(총리원장 회정)이 진언행자들의 신행의식 고취를 위해 10월 27일까지 창작서원가 가사를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자유다. 어린이, 일반으로 구분해 응모해야 하며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접수는 홈페이지(www.jingak.or.kr)

나 팩스(02-913-0755), 우편으로 하면 된다.

총상금은 6백만원이다. 수상자는 개별 통지하고, 진각종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02)913-0753

천태종 소백산지킴이 발족

천태종 사회부와 나누며하나되기 운동본부는 9월 24일 오전 11시 단양



“군법당 관리·운영 우리가 해야죠”

육·해·공군 준부사관 불자회 창립



9월 12~14일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열린 제3회 준부사관수련대회에서 육·해·공군 준부사관불자회가 창립됐다. 사진은 준부사관 수련대회 중 경주 불국사를 참배한 모습.

육·해·공군 준부사관 불자회가 창립됐다. 준부사관들은 장교들과 달리 부대에 장기적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군법당의 운영 및 관리는 물론 군 신도회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군종교구(주지 일민)가 9월 12~14일 경주 콩코드 호텔에 개최한 제3회 준부사관 불자 수련대회에서 260여 준부사관들은 총회를 개최하고 육·해·공군 준부사관 불자회의 창립을 선언했다.

총회에서는 종합군수학교 이강수 준위가 초대 회장으로, 윤상운 원사가 1군 지회장에, 한

우석 원사가 2군 지회장에, 정용장 원사가 3군 지회장에, 전영배 준위가 육국지(육군, 국방부 직할부대) 지회장에, 공상식 준위가 해군지회장에, 김영준 준위가 공군 지회장에 각각 선출됐다.

육·해·공군 준부사관 불자회는 향후 군무원을 포함한 전군 준부사관들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내일 다지기에 주력할 방침이며 군종교구와도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군포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계종 군종교구 주지 일민 스님은 “군의 핵

심 역할을 하고 있는 준부사관들의 연합회가 생겨 군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격려했다.

한편 제3회 준부사관 불자 수련대회에서는 정선진 군종교구 총책자문위원의 ‘군불교 활성화 위한 간부불자의 역할’, 은혜사 주지 법타 스님의 ‘지도자의 역할’, 경주지역 불교 역사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참가자 전원에게 시계를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경주지역의 불국사, 포항 극락사, 백화사 등에서 군포교 발전기금을 회사했고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인문>을, 제주 무량정사 묘관 스님이 <법화경>을 각각 보시했다. 김두식 기자

Interview

초대회장 이강수 준위

“사병불자 발굴 힘쓸터”



“군의 본래 목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장사병들의 정신 전례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육·해·공군 준부사관 불자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강수(사진)

육군종합군수학교 준위는 “준부사관 및 군무원들은 한 부대에 장기적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부대의 주인이나 다름없다”며 “향후 군법당 신도회 활성화 및 법당 자산 관리, 장병 불자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조계종 군종교구와 협의를 거쳐 군불교 발전을 위해 간부 불자 발굴과 조직화 및 부대내 불자들의 법회 참석 유도, 전입 불자 관리 체계 확립, 사병 불자 양성 관리 체계에 앞장서겠다”며 “군법시를 보좌해 적극적인 법당 운영을 지원하고 명상 등 다각적인 법당 운영을 통해 군 신도회를 활성화 하겠다”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밝혔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구축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당 건립 후원

▶장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역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인 동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마하몰 한가위 맞이 효도선물용품 지상 특가전

'오직 현대불교신문 지면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기회!! [특판기간 : ~ 10월15일까지]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희귀한 검은 돌이 뿜어 내는 깊고 그윽한 기운을 느껴 보십시오

희담석 건강용품-점질팩 20% 할인판매 및 사은품증정

희담석 점질팩(날개 및 세트) 및 희담석염주 구입자 모두에게 희담석 눈점질팩을 드립니다.



희담석 점질팩 세트
정가 148,000원
특판가 110,000원



희담석 염주
정가 66,000원
특판가 52,800원

희담석 제품
구매고객
사은품
희담석 눈점질팩
판매가 16,500원



희담석 점질팩
정가 38,000원
특판가 30,400원



희담석 허리팩
정가 44,000원
특판가 35,200원

광물이 숨을 쉰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루이스톤 건강용품 - 15% 할인판매

아루이스톤이란 천광석이라고도 하며, 자체에서 인체에 이로운 기운을 방출합니다. 가까이 두면 자연히 기운이 정화되고 강화되며, 탁기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놀라운 광물입니다.



천기생기 베개
정가 80,000원
특판가 68,000원
크기 : 낮은베개 5cm / 높은베개 7cm



천기생기 받석
정가 65,000원
특판가 55,250원
크기 : 가로 450mm X 세로 450mm



경추베개
정가 60,000원
특판가 51,000원



하이얼 2인용 커피메이커 HK-3000
500개 한정 특판가 15,000원 (배송비 3,000원 별도)



매직필로우
피로회복, 혈액순환,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강화
음식은 허균지압베개 매직필로우
출시기념 특판가 29,500원 (배송비 포함)